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24위 복자

### 복자 최인철 이냐시오

(? - 1801)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철은 한국 천주교회 설립 초기 형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795년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가 그의 형이다. 1791년 신해박해 때, 최인철은 형과 함께 체포되는데, 조정의 회유와 높은 어머니의 호소로 천주를 부정하는 진술을 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그는 제사를 거부하고 동료들과 교리를 연구하였으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문모 신부의 피신을 도왔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최인철은 또다시 체포되었다. 여러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진리임을 역설하였다. 형조에서는 그에게 천주교를 안 믿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죄, 천주교를 신봉한 죄, 널리 전파한 죄, 체포 후에도 천주교가 옳다고 설명한 죄, 주문모 신부를 영입하고 도운 죄를 들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그는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7월 2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소리 주보 ▶



### 입당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 제1독서

이사 35,1-6ㄴ,10

###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ㄴ,9ㄴㄷ-10ㄴㄷ(◎ 이사 35,4ㄴ 참조)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제2독서

야고 5,7-10

###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복음

마태 11,2-11

###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죽보

참석한 미사의 복음이 마태오 복음 1장인 날에는 처음에 몇 구절 듣다가 그다음에는 흘러듣기 쉽습니다.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그 뒤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이 마태오 복음 1장, 신약 성경의 첫 장이라면 분명 중요한 본문일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죽보들이 여럿 나옵니다. 긴 죽보들로 말하자면, 먼저 창세기 여러 곳에 죽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조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죽보들을 따라 엮여 있지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집안의 죽보를 전해 주어, 후대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집안을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긴 죽보 하나를 찾는다면, 역대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경우 흔히 역대기가 구약의 마지막에 자리합니다. 그다음에 마태오 복음 1장에서 다시 죽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오 복음 1장에서 이 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보가 됩니다. 역사의 한 시점에 그리스도(메시아)께서 등장하시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가 아니라 인간의 긴 역사를 당신 것으로 취하면서 나타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보”(마태 1,1). 신약 성경의 첫 구절, 이것이 마태오 복음을 왜 썼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썼을까?”라는,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긴 죽보는 왜 썼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대개 그

첫머리에서 자기가 쓴 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마태오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보에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기 전 그 땅에 살던 사람이었고, 롯은 모압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는 것도(이는 마태오 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분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죽보를 들여다보며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나셨음을 알았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양편 모두가 그리스도를 받았습시다.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양편 모두에게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것인가? 이제 마태오 복음이 질문을 던집니다. ☪



## 주교들의 거룩하게 하는 임무

「교회헌장」 제26항

주교들의 가르치는 직무에 이어, 「교회헌장」 제26항은 주교들의 ‘거룩하게 하는 임무(성화권)’에 관해서 다룹니다.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은 주교는 특히 성찬례 안에서 최고 사제직의 은총의 관리자”입니다. 이러한 주교의 사제적 봉사 직무는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을 준비시켜 하느님 백성이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공의회는 특히 “성찬례 안에서” 주교의 사제적 봉사 직무를 강조하면서, 주교 자신이 성찬례를 봉헌하거나 성찬례가 봉헌되도록 배려함으로써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얻고 성장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지역 교회 안에서 주교의 거룩한 직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 지역 집회 안에 존재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자기 목자들과 결합한 회중을 가리킵니다. 이 회중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지역에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공의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의 신자들이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신자들이 모여 주님 만찬의 신비가 거행된다고 설명합니다. 곧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들이 지역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 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교의 거룩한 봉사 직무 아래에 있는 이 지역 교회에서 공동체의 사랑과 일치이 표징이 드러납니다. 지역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그분 안으로 우리

가 변화되어 들어가는 것, 곧 그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례를 합법적으로 거행하기 위한 봉사 직무가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주교들의 사제적 직무 가운데 성찬례 외의 다른 직무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주교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성”을 신자들에게 풍부히 전달합니다. 신자들에게 말씀 선포의 직무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전달하며, 성사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곧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게 하는 세례 성사의 수여를 규정하고, 견진 성사를 집전하며, 성품 성사를 관리하고, 고해 성사를 지도합니다. 특히 성체 성사에서 신자들이 믿음과 존경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권고합니다.



주교는 성찬례 안에서 최고 사제직의 ‘은총의 관리자’가 된다.  
견진 미사를 주례하는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끝으로 이러한 거룩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교들은 신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며, 자기 품행에서 온갖 악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맡겨진 양 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공의회는 가르칩니다. ☉



## 전례 안에서의 음악

전례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이 거룩하게 하는 교회의 위대한 행위이며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전례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는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고,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더욱 또렷이 드러내 전례를 풍요롭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악은 미사와 성무일도 같은 전례뿐 아니라 신심 행사, 교육, 여러 공동체 모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음악은 단순한 장식이나 분위기 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전례헌장」 113항)을 갖게 되며, 성음악이 전례의 “보완적이며 필수적인” 부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교황 비오 10세, 자의교서 「Tra le sollecitudini」 1항).

성음악과 전례음악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음악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전례헌장」 112항)를 목적으로 합니다. 성음악은 성경과 전례문에 선율을 입힌 것이며, 그 선율은 가사의 의미가 공동체 안에서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개인감정이나 유행에 앞서 성경과 전례문에 충실해야 하고, 거룩함과 예술성, 보편성을 갖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가는 두 배의 기도”라는 말로 성가의 힘을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시편과 화답송, 미사의 여러 찬미가는 문학적이고 서정적 성

격이 강해 단순 낭송만으로는 그 뜻과 정서가 충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선율은 텍스트의 내용과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와 부르는 이 모두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전례 안에서 음악은 공동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성가를 부를 때 흠어진 마음은 하나로 모이고, 공동체의 일치는 강화됩니다. 신자들은 같은 노래 안에서 믿음을 소리로 고백하며, 음악이 열어 주는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전례의 신비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47항 참조).

전례 안에서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며 신자들이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전례헌장」 112항) 줍니다. 성음악이 전례 행위와 긴밀히 결합할수록 그 고유한 거룩함이 더욱 충실히 드러나기에, 성가의 가사는 전례의 형식과 구조뿐 아니라 그 내적 정신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가는 전례를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소리와 선율 안에서 살아나는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대림 제3주일 임당송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여라!〉





## 교구 소식

### 백석농아선교회 수어 미사

일시 12/28(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지하1층 소강당

주례 김종민 F.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루시아

###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 탐조 프로그램

날짜 1/10(토) [당일], 1/24(토)~25(주일) [1박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당일] 5만원 / [1박2일] 10만원(성인), 7만원(청소년)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신청 ▶



### 교구 1월 청년 프로그램 -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하는 HOPE STAY 피정

1/13(화) 20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1/21(수) 20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소년 및 청년(15~45세), 주일학교 교리교사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 한마음 사계 피정 - 1월 (대침묵 피정)

일시 1/23(금) 16시 ~ 25(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주님의 기도

강사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 (원주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장소 동두천가톨릭센터,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업무,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 채용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2/26(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홍성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은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 [담화] 제42회 자선 주일 담화

제42회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 미사 · 피정 ▶▶

### 화정동 성당 성령기도회

일시: 12/15(월) 14시~16시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강의와 안수)

문의: 010-5211-7811

### 가정회복기도와 미사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2/15(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가족의 갈등과 화해)

### 사별가족 1일 피정

일시: 12/23(화) 10시~16시

장소: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남양주시 별내동)

대상: 남편과 사별하신 분

문의: 010-8985-9971

### 예수회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날짜: 12/26(금)~1/4(주일), 1/8(목)~17(토),

1/23(금)~2/1(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문의: 02-3276-7794, 7790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12/31(수)~1/3(토) [한라산]

자연순례·한라산: 1/10(토)~12(월)

1/16(금)~18(주일), 1/22(목)~24(토)

1/26(월)~28(수), 2/2(월)~4(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출 일몰): 12/31(수)~1/3(토)

제주 순례: 1/9(금)~11(주일), 1/23(금)~25(주일),

2/6(금)~8(주일), 2/27(금)~3/1(주일),

3/27(금)~29(주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15(목)~18(주일), 1/30(금)~2/1(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3/18(수)~21(토)

문의: 064-732-4702 면형익집

###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2/20(금)~21(토), 2차: 2/21(토)~22(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1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1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문의: 010-2127-0032

###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날짜: 1/23(금)~25(주일)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중1~35세 미만 건강한 미혼 남성

접수: 1/10(토)까지

문의: 010-6221-3520

### 특별초청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피정

일시: 12/17(수) 11시~16시, 갈현동 성당

내용: 특별 치유말씀 피정 (미사안수, 상담)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점심 무료)

문의: 010-4444-1264 (연신내역 7번 출구)

###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부부 힐링피정: 12/19(금)~21(주일)

성경완독: 1/8(목)~16(금), 2/4(수)~12(목)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 교육 · 모집 ▶▶

###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 성경 치유 특강

일시: 매주(월), (수) 13시~15:30 (파견미사)

내용: 월-사도행전과 바오로의 편지들

수-절망을 넘어서는 회복 (다니엘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 마석 성당 11시 미사 지휘자·반주자 모집

자격: 천주교 신자, 가톨릭 전례에 대한 이해 필수

지휘자: 지휘 혹은 성악 전공자

(성가대 지휘 경험자 우대)

반주자: 피아노, 오르간 경험자

(성가대 반주 경험자 우대)

봉사시간: 주일 11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연습시간: (수) 20시~21:30

(주일) 10시~10:30, 12:30~13: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접수: kth0643@uca.or.kr, 모집시까지

절차: 1차 서류심사 후 면접

봉사로: 유급 (면접 후 결정)

문의: 031-593-4231 마석 성당

###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방법: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중 선택

접수: 1/31(토)까지, 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 이콘 연구소 제24기 신입생 모집

일시: 실기시험 2/21(토), 23(월) 10:30

장소: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 (중구 중림로 27)

강사: 장공선 예로니모 신부

내용: 이콘 제작 및 연구 / 개강: 3/3(화)

대상: 1960년 이후 출생자

문의: 02-313-9973

### 마리아학교 2월 학기 수강자 모집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인 배움, 33일 봉헌

<대면반>

일시: 2/10(화)~8/2(주일), 매주(화) 14시~16시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6개월 과정)

<온라인 줌반>

일시: 2/12(목)~8/2(주일),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전화 신청)

서울 마리아 학교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소 모 임	예수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서울, 대전	010-7485-1964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 청년 남자 성소자 모집		010-5195-3217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20(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접수: 12/29(월)~31(수)  
문의: 043-270-0100, 0109

**예수회 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월요무료피정: 현장만 가능, 8주  
-공동식별, 이근상 신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진현 신부  
-비블리오프라마, 김영근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현장 또는 동영상 선택, 6주  
-지혜문학, 주원준 박사  
-그리스 철학의 신학적 동기, 김민철 신부  
-사랑, 고통과 자비, 덕의 지혜, 박상훈 신부  
-디아스포라 안에 살아있는 교회의 얼굴 찾기, 도윤호 신부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https://blog.naver.com/ggreen1004>

**일산 시니어합창단 2026 단원 모집 - 오디션 면제**

KBS홀 순교자현악음악회, 평화음악제 공연  
연습: 매주(금) 19시, 고양아람누리 연습실 (정발산역)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오디션 면제 기간)  
지휘: 이상희 모니카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분노의 여파와 처리  
일시: 1/21(수) 11시 ~ 23(금) 13시 [2박3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운정)  
주제: 올라오는 화, 어떻게 다룰까  
강사: 김효성 수녀 (성심수녀회)  
문의: 010-9099-2337

**안내 · 기타 ▶▶****2026년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2/10(화)~13(금) 마카오 순례 (KE)  
2/18(수)~21(토) 나가사키 순교성지 (KE)  
2/19(목)~28(토) 이집트 순례 (QR)  
2/20(금)~28(토) 파티마에서의 일주일 (KE)  
3/2(월)~12(목) 이탈리아 일주 (KE)  
3/6(금)~17(화) 튀르키예, 그리스 (TK)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6(금), 2/6(금) 중국 상해 (4일, 119만원)  
2/14(토) 구정특선 - 남인도 성지 (7일, 399만원)  
2/21(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13일, 549만원)  
3/11(수) 유럽 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 KE)  
3/11(수) 파티마성모님과 포르투갈 (9일, 409만원)  
3/15(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9일, 395만원)  
4/7(화), 4/8(수) 이탈리아 일주 (9일, 11일, 직항)  
4/10(금) 산티아고순례길 150km (13일, 590만원, KE)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김대건 신부님 서품 180주년 기념  
1/15(목) 출발 (6일) /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55만원)  
3/17(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7(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5/18(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http://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탐방**

2/28(토)~3/3(화) 전주11, 광주4  
3/27(금)~29(주일) 대구17  
4/11(토)~15(수) 울릉도, 독도, 왜관수도원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서울 명동)  
1/26(월)~29(목) 마카오, 홍콩, 심천 (대한항공)  
3/14(토)~18(수) 일본 나가사키, 고토 (이스타항공)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4(토)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69만원)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07(화)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신/간/소/개

## 시기심으로 죽을 것인가 사랑으로 살 것인가

**시기심과 질투심,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기심은 다른 영적 병폐와는 다르다. 탐식은 음식의 맛이라도 주고, 탐욕은 재물을 소유하는 기쁨이라도 주며, 음욕도 그 나름의 쾌락을 준다. 그런데 시기심은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않는다. 시기심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감각적인 즐거움도,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도 없다. 시기심은 아무것도 보태거나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_32쪽

카트린 오방 | 안영주 옮김 | 160면 | 13,000원  
문의 | 031-850-1533 바오로딸 의정부서원



## 십자 성호

가톨릭신자는 기도의 시작과 끝에 성호를 긋습니다. 십자 성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과 그 결과인 구원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십자 성호를 그으며 바치는 성호경은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긋는 십자 성호, 곧 ‘큰 십자 성호’는 5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넘어가는 그리스식 십자 성호였는데, 13세기부터 서방 전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라틴식 십자 성호가 전파되었습니다. 십자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성삼위의 호칭을 부르는 건 중세 초기에 시작되어 전례, 개인기도,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성삼위를 부르는 기도는 초기 교회에서 세례 때 사용하던 신앙고백문에 근거합니다.

오늘날 기도나 전례를 시작할 때 성호경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1코린 10,31);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골로 3,17)”. 또한 성호경은 미사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사는 인간 구원을 이룬 십자가 제사의 재현이므로, 신자들은 이 제사의 시작에 성호경을 바치면서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신자들은 세례 때 고백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도움으로 ‘신앙의 신비’인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미사 끝에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사제의 강복을 받습니다.

‘작은 십자 성호’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십자표를 그으며 축복하는 동작입니다. 이는 이미 2세기경 시작되었는데, 입교 예식에서 주례자는 예비신자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였습니다. 4~5세기경부터는 사제가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12세기에는 복음을 읽는 부제(또는 사제)가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를 긋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가 함께 긋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 말씀을 믿어 기억하고(이마),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입),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십자 성호를 ‘자주, 분명하게’ 그으면서 가톨릭신자임을 드러내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봉일천 성당

(성 김대건 인드레이 성당)

사무실 : 945-9901

FAX : 945-9903

주임신부 : 유 경 재 (요 셉)

사목회장 : 김 선 용 (마르첼리노)

선종봉사 : 추 경 속 (가 밀 라) 010-3575-2675

홈페이지 : <http://sd.uca.or.kr/bic>

주 소 : 1093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5



미사안내

토

오후 4시 (어린이, 청소년 미사)

오후 6시 (토요주일저녁미사)

주일

오전 9시, 11시 (교중미사)

월

오전 6시

화·수·목·금

오전 10시

성시간

1주(목) 오후 7시 30분

병자영성체

1주(금) 오전 10시 미사 후

유아세례

수시(사무실 신청)

면담·축복·병자성사

전례

※ 12월의 환경 실천 - 에너지 사용 줄이기(사회사목 환경분과)  
불필요한 전기 끄기, 집 나올 때 전기 확인하고 나오기

※ 성탄 판공 성사 안내  
· 판공성사기간 : 12월 21일(주일)까지  
· 집중판공성사 : 12월 14일(오늘) 14시~16시

※ 성탄 및 신년 전례 일정

구분		날짜	미사시간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12/24(수)	오후 8시
	낮미사	12/25(목)	오전 9시,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오전 9시, 11시

※ 12/24(수)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특별 헌금 일정  
· 12월 14일(오늘) 자선 주일 특별헌금

※ 첫영성체 교리 접수  
· 대 상 : 초3 ~ 초6(2026년도 기준)  
· 첫모임 : 1월 4일(주일) 교중미사 후 자개오방 (부모, 자녀 동반)  
· 회 비 : 8만원  
· 문 의 : 교리교사(010-7370-5610)

회합·모임

단 체	일 시	장 소
대건회	12/14(오늘) 오전 09시 미사 후	소망방
꾸리아 연총	12/14(오늘) 교중 미사 후	크리스탈 룸
빈첸시오회	12/14(오늘) 교중 미사 후	회합실
울뜨레야	12/21(주일) 교중 미사 후	믿음방

성당청소

12월 19일(금)	평화의 모후 Pr.
------------	------------

현황 주일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참례 인원	참석률
1,110명	377명	33.9%

회계 11월 회계보고


수입	계정과목	지출
12,610,000	교무금	
8,249,600	주일헌금	
800,000	감사헌금	
41,033,000	건축헌금	
10,773,000	본당분할헌금	
515,000	성소후원금	
435,000	빈첸시오회비	
280,000	제대꽃봉헌	
1,896,000	특별헌금	1,896,000
250,000	기타기부금(달력광고)	
4,870,000	여성구역 판매수입	
9,520,000	이자수입	
	본당행사비	469,800
	단체보조비	2,057,200
	인건비	6,949,600
	운영비	6,789,260
	운영수지차액	+73,069,740
91,231,600	합 계	91,231,600

헌금 우리들의 정성 (12월 1일 ~ 12월 7일)

12/7 대림 제2주일		1,719,000원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1,063,000원
교무금		3,050,000원
건축헌금	성전신립헌금	2,620,000원
	본당납입분	3,335,000원
제대꽃봉헌		50,000원
빈첸시오회비		75,000원
성소후원금		105,000원
감사헌금 - 조정순 소화데레사(100,000원)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홈텍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라 모든 기부금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기부자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교무금 자동이체 입금 계좌  
우리 1005-400-95259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주 - 님 저 희 를 구 원 하 러 오 소 서

교중미사성가	입 당	89	봉 헌	220, 219	성 체	174, 182, 171	파 견	88(2,3)
--------	-----	----	-----	----------	-----	---------------	-----	---------

“교무금 및 건축헌금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